

김영호
<출판기획>

I.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에게는 박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갖 내면 죄악과는 각별하게 박스-레닌주의의 주체사상은 자신들의 지도사상을 삼아 각자 다른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전히 주체사상은 박스-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오늘날의 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것인가? 아니면 박스-레닌주의의 일관성이?

먼저 주체사상의 창시자와 그것을 실화·발전시켰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주체사상은 박스-레닌주의 원리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아니라 한 시대의 혁명적 요구를 끝에 반영한 사상입니다』

『종래의 철학자들은 세계에서

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

다는 유물론의 원리다.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

증법의 원리를 밝혀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원리를 모든

물질세계의 일반적인 원리로

주체사상은 그대로 받아들

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합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우리사회의 박스-레닌

주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온갖 경의가 될 수 있습니

다.』

『...일반전의 한 편에서

주체사상을 자체의 유통

방법으로 이어놓는다. 우리는 그것을 예

쁜, 변증법적이었는데 이제는

는 주체사상은 독립된

인식으로 밝혀지면서

나아가 그 일상생활에

마지막으로 밝혀지면서

나아가 그 일상생활에

마

제26회 외대문학상 가작

소설부문

< 8면에서 계속 >

말을 채 워지 못하고 나는 입을 떨었다. 멀힐 전 여관에서의 밤이 그 꺼져버린 기억과 실라래가 어느 심술 속에 세밀로 숨겨져있다가 중간 힘에서 슬슬 풀려 외감 기기 시작했다. 너는 학교도 졸업 하지 못한 상태로 어딘가에 끌려갔다고 했던 것 같다.

아! 이렇게 맞다가 죽는구나 싶어 알고있는 증거들의 이름을 하나씩이나 불어내면서 침기도 가지 못한 채 훈련병으로 입대를 하게 됐다니깐. 입대 후에도 너는 별 이유없이 어느 날 보안대로 끌려가서 엄연 할 수 없도록 폐고 조심해서 기라는 얘기들을 들으며 자交代 차를 받은 뒤 계단을 감사하거나 비슷한 군事情이 이번처럼 일년 이개월 만에 처음나온 휴가라고 했었다.

네가 그나마 그 정도로 끌려가된 것도 어찌된 군 청으로 있는 네 외사촌들이 힘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을 터이라고 한 것 같다. 그보다 학교를 다닌면서 내가 거기 해줘 있었던 수많은 부조리와, 수 많은 짓밟힌 사람들을 대체해서 너는 얘기 했었다. 오. 그래. 난 그런 것 아무 것도 필요치 않고 다만 허투루 무의 밥과 아직 먹지 않은 훈련병과 담당 걸을 날이 나오는데도 또 다시 받아들이는 하자금 용지에만 관심이 있노라고. 네가 때들었지. 어제 그 용지에 들어보니 있었을까? 술 때문이었을까. 살아있다는 걸 누구든 확인하고 싶지 않았느니. 나도 세상을 돌아보려 살고싶다… 그랬었다.

『무엇보다 난… 그때 내가 불어버렸던 선배나 친구들에게 사죄해야지만 해.』
너의 목소리가 깊게 가라앉았다. 깊고 차운 목소리 같아 프랑스 음유시인이 부드러운

『와 일년. 그 일년동안 난 기록을 할 예정이다. 그들이 끝나면 내

반로 찾아갈거야. 어제 울리온 이

후로 날 내가 유일하게 만난 사람

아이. 내가 만약 다시 놔줄 안다는 일은 생기면 너 내 존재를 증명해주어야 할 증인으로 남게될 것이다.

『증인? 왜 하필 나를 택했지?』

『그건 너가 내가 택하지않을,

기장 나와는 등떨어져보이는 사람

이기 때문이다. 기장 나를 잘 알고

『제판이 먼저진 바위는 사람들

이 관심을 두고 한번 더 치다본다』

『제판…』

『그대 이젠 그만 하지.』

너는 다만 안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일곱시 심분, 그가

을 시간이다. 나는 심분간 너를 잡아주려고 했었다.

혹시 네가 조금늦을 경우를 대비

해서 혹은 네가 경계를 풀지않고나

살피기 후에 내게로 나타날것을 대비해서 말이다. 그러면 대화시점이

와 가깝친다면 친구 경식이의형

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 은행엔 가면 돈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나를 만나라.』

차한 밤으로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나는 조금 덜 달린 황분을 머금어 풀었다.

『나와 피곤하신 모양이죠?』

기사가 친절한 목소리로, 빌려온

드레스에 힘껏 내 얼굴을 살피면서

동행 힘껏 내 얼굴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화장실을 갈 수가 없

다. 너를 거기까지 못해 책임까지 질

수는 없는 일이다. 오줌이 마렵

쪽에 즉 푸른색으로 고구마나 깨끗

환경을 대했을 때 나는 결론을 내렸다. 두루보다 탐사이라는 이름이 네 인생에 주어야할 무게를 네 절생동안 함께 짊어질줄 알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그에게 팔을 잡힌 채 디방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나와 외침꾼이 손을 써짰대더라. 오늘밤 일로 휴대폰을 가져와면 가기 전 벌집을 끌어내겠다는 거야. 너네 부모에서도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속마음이지.』

경시가 말했다. 너는 대답이 없었다.

『빨리 차에 타.』

『미안하다. 난…』

너는 물어보자 차에 올라탔지도 않은 품을 구겨졌다. 그리고 너희들 네

사람들은 미안상 끌어오지도 않

은 듯e 떠났다. 모든 건 너도 쉽게

끌어냈다. 내 그 무수했던 고민

과 멀티의 방향, 일상에서의 일상

같은 것들을 너는 너로도 험사리

무시무시한 채 한바탕 위인도 주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말을 들려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었지만 걸

은 아득히 멀어보기만 했다. 난

내가 끌어온 사람이 내 발바닥을

일생을 품어내고 있는 걸 느꼈다.

달같이 묻은 바위는 한번더 쳐

다보았다. 저녁은 목소리를 비

풀어지지 않고 잡아왔다.

나는 네 목소리를 떠올렸다.

중생에 진 모두가 깨어있는 일이

아. 네 목소리가 도내 허리를 잡

았다. 날은 건 모두 내 목이야.』

『단 걸라. 아무 것도 몰라. 난

어디로 찾지도 않았고 들판도 못

왔다. 누가 어떻게 죽어가건 무슨

상관이야!』

난 달리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어이난 아시아의 힘과 홀�试지

던 그때처럼 나는 배가 배에 해준

얘기로 내려온 해결책을 찾던데

그리고 살펴보니 그게 해결책이었다.

『당신은 내게 물지 않았았다. 설

구 누구는 알았어?』

너와 내 눈이 미루웠다. 난 내자

기에서 물지 않았고 서 있었다.

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지.』

나는 그에게 물었지. 그들은 차에

나를 끌어내기 위해 차에

밀려온 것이다.』

그가 너의 등을 두들기며 말했다.

『못난 놈. 시기야 해결해줄텐데

그리고 살펴보니 그게 해결책이었다.

『당신은 내게 물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이어에게 물지 않았다. 설

구 그에게 물어온 걸 듣고는 그의 징검도를

보며 광연한 일을 한 것 같았지.

하는 후회가 있던 미루었다.

내가 천천히 다가온에 눈이 온다는 소리가 내게 폭력을 해왔다. 길가에 차를 한데 세워놓고 그들은 차에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사는 활짝이 바위 신흠품을 부

시하고 내앞으로 말했다. 눈이 온

다구? 나는 한 번으로 새삼스레 눈

을 주었다. 유행동안 눈이 오지 않

아 예전에 있었던 눈조차 녹아버

리고 슬기로운 새해를 맞이하

여인 아스팔트가 당장 갈라진 듯

팽팽하게 밟자신 소리를 희어져 대

고를 힘껏 내려쳤다. 그의 징검도

는 신선한 친구와 기운이었다. 소

리는 신선한 여인같은 느낌으로 다

가렸다.

정말 바람속에 눈이 풀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이 풀리고는 포

도 위에서 쓰이지 못한 채 지나온

걸을 끌어들이며 풀을 풀어놓았다.

『난 내 아스팔트를 쓰여놓았다.

수고해 끝에 풀을 풀어놓았지.

기사가 차에 올라탔다. 그는 차에

나를 끌어내기 위해 차에

밀려온 것이다.

그가 너의 등을 두들기며 말했다.

『못난 놈. 시기야 해결해줄텐데

그리고 살펴보니 그게 해결책이었다.

『당신은 내게 물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이어에게 물지 않았다. 설

구 그에게 물어온 걸 듣고는 그의 징검도를

보며 광연한 일을 한 것 같았지.

하는 후회가 있던 미루었다.

내가 천천히 다가온에 눈이 온다는 소리가 내게 폭력을 해왔다. 길가에 차를 한데 세워놓고 그들은 차에

딱 일년, 그 일년동안 난 기록을 할 예정이다

일이 생기면 넌 내존재를 증명해 주어야 할 증인으로 남게되는 거다.

그건 네가 나와 가장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발음으로 글씨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너는 지나가는 사람들, 애인을

만나려고 두터미가리며 깨끗한

한 걸을 입어 버렸다. 그대로

자자로 내려놓았다. 깨끗한 한 걸을 입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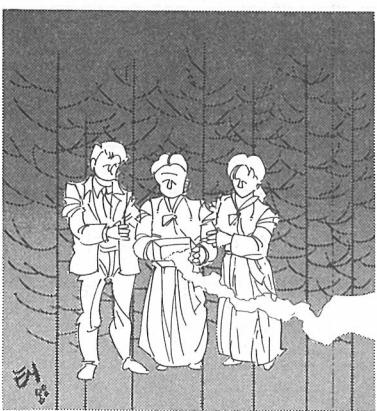
『당신은 미안해.』

『그럼 그걸로 미안해.』

『그걸로 미안해.』

회곡부문

제26회 외대문학상 가작



때: 1987년 6월에서 늦가을까지
곳: 벽체부근의 애신과 서울의 대학로

나오는 사람들

이양녀: 55세
서지혁: 26세, 그녀의 외아들, 대학생

김대식: 26세, 저희의 친구, 복학생

임민섭: 29세, 국립 운동건 대학생

김현정: 저희의 애인

학생 그.: 손님 그.:

손님 그.: 웨이터, 여주인

제 1 장

무대

벽체 인근의 애신 확대기 하늘은 청아하고 위쪽으로 겹겹히 쌓인 산의 원경. 무대의 원판에 평화롭게 너른 바위, 뒤쪽에는 노송 두 그루가 있다.

노송 아래쪽은 오솔길. 마른 낙엽과 잔지들이 무대를 채운다.

개막의 징소리와 함께 관객 불이 서서히 깨지고, 무대 F. I. 바위와 노송사이에 흰 산복을 입은 이양녀와 검은옷의 김현정, 김대식이 서있다. 노송처에 디자인된 학생들과 학생들이 이양녀쪽을 보며 서있다.

M. 우리의 소원이나 나즈막한 갈리며 부대전체를 예진하게 유도한다.

E. 여러분들의 산새소리, 스산한 바람소리.

가을의 한적한 분위기와 물들인 물의 조성과 함께 조조, 스포트라이트가 한시합 한사람의 표정을 비추고 지나간다.

▲이양녀 (느느끼며) 날천장고이 전 나나방이 아들까지 내손으로 잘 사 지내는구나. (마위족으로 돌아선다.)

▲김대식 (손을 잡으며) 어찌 하

나뿐이에요. 여기 저희들이 있는 데.

▲이양녀 (마주보며) 그대 너희들이 있었구나.

▲김현정 (기이하게) 다니께서 그 템으로 비록 친자식만은 험도해서 것의 묵직요.

▲이양녀 (어색하게) 웃으려나 너는 내 머느린디……

무대 잠시 침을 해진다.

▲김대식 (굵은 표정으로) 저희의 애인 조국의 아버지죠.

▲학생 그. (회 있는 소리로) 죄지 않았으나 저지인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았지요.

▲김대식 (기이하게) 좋았어요.

▲김현정 (기자기 큰소리로) 아베요. 나도 전인해요.

▲학생 그. (애원하기) 피지배자? 누가?

▲김대식 (소리치기) 혹적을 위한 일종의 수수께끼죠.

▲김현정 (여기한 듯이) 수도단이 라노?

▲김대식 (방아기기듯) 두수단의 방

관자로운 고개를 풀리며 어렵다.

▲이양녀 (고개를 풀리며) 어렵구나.

▲김현정 누굴 위해서?

▲학생 그. (애원하기) 우리나라과 민족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김현정 폭력으로 말입니다?

▲학생 그. (회眸) 흑적을 위한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김현정 (여기한 듯이) 수도단이 라노?

▲임민섭 (다가 앉으며) 오랜만에 인식시켜야죠.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되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이 양녀는 곧은을 풍자하는 들판 위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친밀해졌다.

